

## 문학 문화콘텐츠의 원형, 낭독

주현진 \*

### || 차례 ||

1. 머리말 : 문학의 생존성, 목소리
2. 문학의 문화콘텐츠화
  - 2.1 낭독의 문학 : 문학의 내재적 목소리
  - 2.2 문학의 문화콘텐츠화 : 낭독과 문학축제
3.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디지털문명의 시대에 놓인 문학, 시의 현재적 존립성에 대한 고찰과 문학의 원형적 정체성에 대한 사유를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문학 혹은 시의 원형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내재적 목소리(혹은 음악성)가 ‘구체적(physic) 통로’를 통해 표면화되는 것이 문학의 미래 생존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이 범람하는 초현대사회에서 문학 특히, 시의 생존성이 위협당하고 있음은 알랭 바디우와 같은 (철)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생존해온 문학, 시의 지속성이 갖는 근원적 힘은 헛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그 힘은 곧 문학의 고유한 목소리가 표면화될 때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즉, 문학의 내재적 목소리의 표면화라 할 수 있는 문학낭독은 곧 영겁의 세월동안 문학 그리고 시가 자생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시)의 위기를 말하는 오늘날 문학적 목소리의 재연인 낭독이라는 적극적인 문학행위를 통하여 문학과 시의 자유로운 이동을 탐구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문학이 여타 문화예술영역들처럼 축제의 공간을 넘나드는 문화콘텐츠로 정착하여 세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방안 모색은 문학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로 여겨진다. 때문에 본 연구는 고대 아테네 광장에서 공연되었던 비극처럼, 중세 음유

\* 충남대학교. lelliaju@hanmail.net

시인들의 낭독처럼 혹은 18세기 조프랭 부인의 살롱에서 행해진 문학낭독처럼, 오늘날 문학축제 속에 자리한 문학낭독의 위치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처럼, 문학을 생생하게 존재시키는 목소리의 표면화를 통하여, 紙面을 떠나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는 문학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임을 확인해보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언표 “우리들을 구원하러 올 신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사유와 시로써 이뤄져야한다”는 명제를 실행하게 하는 문학의 생존성이 낭독을 둘러싼 문학축제에서도 발견될 수 있음을 확인해보는 것이다.

주제어 : 하이데거, 알랭 바디우, 안토니오 마차도, 옥타비오 파스, 이브 본느푸아, 미셸 드기, 낭독, 낭송, 문학축제, 파리국제도서전, 시인들의 봄, 현대시

## 1. 머리말 : 문학의 생존성, 목소리

프랑스 시인 미셸 드기 Michel Deguy가 『서정시학』(2014년 봄호) 특별좌담<sup>1)</sup>에서 밝히듯이, 서구에서 철학과 시는 그 기원부터 마치 쌍둥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천상에 대한 직관” 그리고 “절대와 초월 혹은 최상의 음악성”에 대한 공통된 열망을 품어 왔다. 같은 열망을 추구함에 있어서 철학은 ‘형이상학(metaphysic)’이란 이름의 방법론을, 시는 ‘서정성(lyrism)’이란 이름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서구가 19세기에서 20세기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철학과 시는 서로 다른 운명을 겪게 된다. 이성이란 위대한 명목을 위하여 신을 면직시켜버린 철학은 형이상학을 해체해나가기 시작하지만, 시는 오히려 형이상학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목 즉, ‘존재(Being/l'Etre)’를 제시한 독일 예나(Jena)의 낭만주의자들과 함께 절대자의 들판으로 달려 나가게 된다. 물론, 이 절대자는 봉건사회 서구가 신봉하였던 종교의 신을 대체하는 시인들의 신이다. 이 후자는, 오늘날 시인들에게 이르러, 이를 테면 이브 본느푸아 Yves Bonnefoy가 「개시(開始)의 환상 속에서 (Dans le leurre du seuil)」라는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신,

1) 「특별좌담 : 시대의 전환을 꿈꾸는 시인 - 프랑스 시인 미셸 드기(Michel Deguy)와의 좌담(미셸 드기 최동호 김수복 박효환)」, 『서정시학(2014년 봄호)』, 57-154면.

그러나 천부적 재능을 보존하는 신”<sup>2)</sup>으로 시인의 행적을 남기게 하는 동기가 된다. 즉, 현대 시인의 신은 “아무도 아닌 채로, 아무것도 아닌 채로, 그렇지만 곳간의 변형된 지붕 위 너머에서, 속죄 받은 몇 마디 말로 여기에서 빛을 발하며 태어날 신”<sup>3)</sup>인 것이다. 결국 여기서 말해지는 시의 신은 무(無 / 'néant')의 신이다. 그렇다면, 시인의 언표는 신을 부정(不定)하기 위함인가? 이브 본느푸아가 시인들의 신에 대한 부정으로 시를 연결시키는 것은 종교적 신 그리고 형이상학적 신을 시(詩)의 신으로 교체하려는 단순한 의도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것은 마치 알랭 바디우Alain Badiou가 말한 “시인들의 신”<sup>4)</sup>이 그리스도교 종교에서 말하는 신도 고전철학에서 말하는 기하학적 신도 아닌 것과 같다. 이브 본느푸아가 구체적 정체성을 부정한 시의 신은 어쩌면 하이데거가 말한 “우리들을 구원하러 올 신”<sup>5)</sup>일지도 모른다. 그 어느 것에도 그 누구에게도 결부되지 않은 시의 신, 종교도 형이상학도 아닌 시의 신은 니체에 의한 종교적 신의 죽음이 공포된 이래로, 홀로 자유로이 남겨진 시 자체가 지닌 임무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합리적 과학정신이 신비주의나 형이상학에 대한 흥미를 급감시키고, 실용학문과 과학기술이 인류발전에 사용되는 학문으로 간주되는 21세기에 분명 종교의 신, 형이상학의 신과 같이

2) Yve Bonnefoy, *Dans le leurre du seuil* in *Poèmes*, Paris, Mercure de France, 1978, 281면 : “le dieu qui n'est pas, mais qui sauve le don”

3) Yves Bonnefoy, 《Baudelaire contre Rubens》, *Le Nuage rouge*, Paris, Mercure de France, 1977, 73면 : “Dieu à naître qui n'est personne, ne sera rien, brillant pourtant là-bas sur le toit transfiguré d'une grange, ici dans quelques mots rédimés”

4) Alain Badiou는 신의 정체성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면서 저서 *Court traité d'ontologie transitoire*(과도기적 존재론에 대한 짧은 논설)을 시작한다. 즉, 종교의 신, 형이상학의 신 그리고 시인들의 신이다. 종교의 신은 이미 죽었고, 형이상학의 신은 해체되기 시작하였으며, 시인들의 신은 더 저항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피력한다. 시인들의 신은 휠더린에서 켈란까지 시인들의 시대로 안내하기도 하고, 또한 하이데거와 같은 몇몇 철학자들이 시적 언어와 맺는 관계를 통해 초월에 대한 막연한 탐구를 살포시 드러내는 상황으로 안내하는데 사용되기도 함을 밝힌다.

5) 1966년 9월 23일 *Der Spiegel*과의 인터뷰에서 하이데거가 표명한 “Nur noch ein Gott kann uns retten(하나의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언표는 이후 중요한 철학적 지표가 된다.

언어적 체계에 존재를 기대고 있는 신이 설 자리가 없음은 명백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래할 신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사유와 시로써 이뤄져야한다”<sup>6)</sup>는 하이데거의 예언적 언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까지 생존한 시는 미래에도 생존할 것이다.

그렇다. 인류 문명이 발현한 고대부터 디지털 문명이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는 자신의 항구적 생존능력을 증명해왔다. 다시 말해서, 서구 봉건시대에 자신의 영속(永續)에 대하여 일말의 의심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신조차 죽음을 맞이한 현대적 급변에 시는 저항하였고 생존하였다. 사실, 시는 기원전 8세기 경 호메로스의 서사시 형태로 출현한 이래로 오늘날까지 단 한 번의 꺾임도 없이 지속되어 왔다. 최첨단 문명으로 점철된 사회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시대마다 고유한 색채로 구현되었지만, 시는 여타 문학형태들과 변별된 채 존재하여왔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때로는 신화로, 때로는 이야기로-와 함께 태어난 시가 이토록 강력한 저항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가 다른 문학범주들과 구분되는 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시는 음악성 위에 구현된 ‘文’ 예술이라는 것이다. 시의 음악성은 시의 태생적 성질이며, 또한 인류의 역사를 따라 흐르면서 시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저항할 수 있었던 힘의 근저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문학의) 종말을 공공연히 통보받는 21세기에, 그리고 미래에 시의 생존을 지탱해줄 수 있는 기반을 음악성에서 찾아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음악성으로부터 전체 문학이 ‘文’의 밖으로 나아가 생존할 수 있도록, 오늘날 문화의 새로운 접근양식인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날 문학이 또 다른 문화예술 장르로의 전환-이를테면, 각색을 통한 TV드라마 또는 영화-없이, 문학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학문연구의 지평확대 결과로 양산된 문화콘텐츠라는 새로운 학문적 접근에 문학이 적응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가능성을 문학이 지닌 고유한 음악성의 표면화과정을 통하여, 문

---

6) 위의 기사문

학을 문화콘텐츠라는 영역으로 끌어낼 수 있는 문학축제의 방식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음을 피력하고자 한다. 좀 더 명료하게 말하자면, 그 음악성의 외연적 재현인 목소리로 뱉어지는 낭독이라는 문학 생존의 원형적 방식이, 문화콘텐츠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도 문학의 존립을 가능토록 하는 ‘현대적’ 방안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밝히는 데에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낭독을 통해서 (서구)문학의 출생신고는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몇 천 년이 흐른 오늘날 낭독은 문학을 문화콘텐츠 기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유효한 통로이다. 본론에서, 우선적으로 문학낭독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낭독을 통한 순수문학의 대중적 수용의 현재적 상황을 짚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문학 독자들이 점점 감소하는 하이퍼테크놀러지 시대에 문학이 문화콘텐츠로 기능할 수 있는 역량을 예측해 볼 것이다.

## 2. 문학의 문화콘텐츠화

스페인 ‘98세대(Generación de 1898)’의 시인 안토니오 마차도Antonio Machado는 “노래와 이야기는 시이다. 생생한 이야기를 멜로디로 말 하면서 노래 부른다(Canto y cuento es la poesía. / se canta una viva historia contando su melodía)”<sup>7)</sup>라고 시를 정의한 바 있다. 이 시적인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이 바라보는 시의 본질은 서정의 토로를 평면 위에 적어내려 가는 행위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살갓을 뚫고 나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와 어우러져 번져가는 흐름 속에 있음이다. 즉, 시는 시인 안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타인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 세상으로 흐르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동적 흐름은 목소리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해서, 시에 내재한 목소리를 밖으로 토해내는 생생한 목소리로부터 나온다. 요컨대, 문학창작이 내재적 목소리의 구현이라면, 문학

7) Antonio Machado의 1924년 시집 *Nuevas Canciones*에 실린 ‘De mi cartera(내 지갑)’이라는 시의 일부분이다.

작품 그 자신은 내재적 목소리의 구체적(physic) 재현을 통해서 재생될 수 있다. 그러나 초특급 과학기술의 절정인 ‘지금, 이 순간’ 영상의 범람 속에 묻혀 버리는 문학작품의 재생은 이른바 물리적(physic) 도구에 의한 작품의 구체적 재현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대개는 영화나 연극처럼 복잡한 도구나 기술의 도움을 받아 다른 문화영역으로 이동하면서 문학작품은 종종 재생되고, 또한 이런 방식으로 문학의 광범위한 생존성을 입증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내재된 목소리의 표면화’ 즉, 낭독은 작품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그 어떤 전이(轉移)도 없이 내재적 목소리를 가장 정직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문학재생 방법이다. 또한, 낭독은 문학적 주체가 자신만의 유일하고도 고유한 물리적 매체 ‘몸’을 도구로 사용하는 구체적 재현행위이다. 문학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낭독은 오늘날 문학을 문화콘텐츠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원형인 셈이다. 때문에 오늘날 낭독에 의한 문학작품의 재생 혹은 생존이 어떤 위상을 구축하고 있는 지 상세한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고, 문학의 지속적 생존 가능성을 예측해보기로 한다.

## 2.1. 낭독의 문학 : 문학의 내재적 목소리

문학을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재구성할 수 있는 방안모색은 태초에 노래로 이야기로 존재하였던 목소리<sup>8)</sup>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문자시대 이전 인류의 목소리는 분명 “이야기들(신화들)을 설명하고 꾸미고 혹은 이상화”<sup>9)</sup>함으로써 劇을 탄생시켰고, 문자시대의 인류는 목소리를 통하여 극의 비극성을 서정시로 인도하였다. 기원전 6세기 무렵 고대그리스에서는 디오닉시아 축제와 함께 낭독에 의한 劇이 출현하였고, 기원전 5세기에는 3인의 비극시인들(아

8) 고대 동서양을 떠돌아다니던 이야기들의 구비전승에서 문학의 탄생과 성장이 이뤄진 것은 주지적 사실이다. 더군다나, 목소리는 태초에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헤시오도스가 *Theogony*를 시작하는 첫 문장 “뮤즈들로 부터 우리들의 노래를 시작하자(Commençons notre chant par les Muses / From the Heliconian Muses let us begin to sing...)”라든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라는 그리스도교 구약성서의 시작을 상기해보도록 하자.

9) 오스카 G. 브로켓 외, 전준택 역, 『연극의 역사 I』, 연극과인간, 2003, 19면.

이스킬루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이 코러스, 춤, 노래, 劇이 혼합된 종합예술에 가까운 비극형태를 구현함으로써 문학과 낭독의 관계를 불가분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동기이자 도구가 되는 문학의 내재적 목소리, 문학의 음악성은 중세를 거쳐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른 예술 장르를 관통하는 서구의 문화유산이 되었다. 3인의 그리스 비극시인들을 곧바로 뒤따르는 세네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17세기 비극작가 라신(『페드르』)과 18세기 괴테(『타우리스 섬의 이피게니』)를 비롯하여, 스트라빈스키(『오이디푸스 왕』)와 글루크(『이피게니』)의 오페라, 현대시인 폴 클로델 Paul Claudel이 각색한 다리우스 미요 Darius Milhaud의 오페라 『오레스테이아』 등등 고대그리스 비극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은 끊임없이 등장한다. 문학과 음악에서 되살아나는 고대그리스 비극에 깃든 음악성, 낭독을 내재함과 동시에 외연으로 이끌어내는 그 음악성은 르네상스 이후의 서양회화에서도 극화되어 전개되기도 한다.

고대그리스 비극이 이토록 후대의 문학, 음악 등의 예술에 영향을 끼친 것은 비극적 구성의 힘이 작용한 덕이겠지만, 당대 문학인 비극에 내재한 목소리와 그 목소리의 표면화인 낭독에 이르게 하는 음악성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호메로스, 베르길리우스, 아이스킬루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의 문학이 낭독에 기대지 않았다면, 중세시대 관대한 봉건영주를 찾아 떠돌아다니던 음유시인들의 발자취도 없었을 것이고, 인본주의자 페트라르카의 『칸초니에레 II Canzoniere』가 완성시켜주는 소네트형식의 서정시도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울리다’라는 어원에서 출발하는 소네트형식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시의 속도(rhythm)와 운(韻)을 살리는 정형시를 낭독하던 플레이아드 파 시인들이나 낭만주의 시인들도 없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오늘날 無形의 시를 낭독하는 시인들의 모습을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듯, 문학은 요컨대 낭독됨으로써 존재하게 되었고, 또한 낭독됨으로써 진보하게 되었다. 즉, 낭독은 문학을 생존케 하려는 자생적 의지의 저어두운 심연에 포석된 모든 재현 방식의 발원 동기이며, 오늘날 문학에 부여된 새로운 기능 ‘문학 문화콘텐츠’의 원형인 셈이다.

## 2.2. 문학의 문화콘텐츠화 : 낭독과 문학축제

“알랭 바디우는 20세기가 만들어낸 시대적 사유를 해석하는 자신의 저서 『세기 Le Siècle』 (ed. Seuil, 2005)에서, 예술이 끊임없이 재검토하는 언어의 시대는 일찍이 종결되었고, 이제 일상적 교환의 언어 혹은 이념의 언어만이 거의 파괴된 상태로 무기력하게 남아있음을 표명한다. 비록 바디우가 13장으로 된 저서와 각 장을 한 편의 시로 시작하면서 시적인 취향을 드러냈다 할지라도, 철학자의 눈에 비친 시는 과거의 유물이며, ‘죽은 시인’의 언어”<sup>10)</sup> 일 뿐이다. 저서에서 철학자의 언표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곳에는 예술 언어의 종말, 문학 언어의 종말이란 담론이 놓여있다. 철학자의 논의는 절망적이긴 하지만, 오늘날 문학이 그리고 詩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들춰낸다.

지금, 이 순간 문학은, 시는 진정 어떠한가? 예술 언어의 시대가 종결되었다고 선언되는 이 시대에 문학의 기원이자 원형인 시의 생존성은 보장받을 수 있는가? 20세기를 보내는 시점에서 이미, 어쩌면 그 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은 시의 현대적 위상에 대하여 끊임없는 의문을 품게 된다. 옥타비오 파스Octavio Paz가 「시와 세기말」이라는 글 첫머리에 길게 배열한 단어들을 보자. “어쩌면 시에 대한 모든 사유는 다음의 물음으로 시작되거나 종결되어야만 할지도 모른다 : 누가 시를 읽으며, 시를 읽는 사람들은 몇 명인가?”<sup>11)</sup>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인가? 선배시인 후안 라몬 히메네스Juna Ramón Jiménez의 서명을 상기시켜 준다. “무한한 소수에게”. 지난 수 세기동안 천상과 지상 사이에서 浮游하며, 철학적이고 인본주의적 담론으로 논의되던 시가 21세기에 들어와 통계학적이고 사회학적인 물음에 부딪히게 되었다.

프랑스 문학평론가 팽송Jean-Claide Pinson의 언표처럼, “하나의 문학 양식으로 소외되고 빈사상태에 놓인 채,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장르로 전락해가고 있는 시”<sup>12)</sup>, 이것이 오늘날 시에 주어진 운명인가? 사실, 시의 이러한 운

10) 주현진, 「한국 고등교육 속의 프랑스 시 위상과 전망」, 『불어문화권연구』 (제 23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설 불어문화권연구소, 2013, 309면.

11) Octavio Paz, “Poésie et fin de siècle”, *L'autre voix*, Gallimard, Paris, 1992, 89면.

명에 대해 이견을 내놓을 이는 없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에서 시가 거의 부재하다시피 하는 상황을 보아도, 지난 시대(예를 들면, 1990년대)에 비하여 시 독자의 수가 현저하게 급감된 것만 보아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언표이기 때문이다. “문학 언어의 종말”이라는 극단성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최첨단 과학기술이 사회를 주도하는 지금, 이 순간 순수문학 혹은 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 그리고 시가 오늘날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 발견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옥타비오 파스의 한탄처럼, 21세기의 시가 통계학적 사회학적 범주의 그물망에 걸릴 수밖에 없다면, 시대적 가치와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문화콘텐츠라는 범주 속에 문학과 예술을 가둬놓고 그 경제적 가치를 가늠하는 21세기에 순수문학이 정체성과 고유성을 보존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길이 아닐 수 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의 후예들, 또한 고대그리스 비극의 후예들인 서구에서 개최되는 여러 책박람회와 문학축제에서 그 해답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매년 영국에는 London Book Fair를 비롯하여 350여개의 각양각색의 문학축제가 있고, 프랑스에서도 3월의 Salon du Livre(파리국제도서전)을 비롯하여 매 계절마다 다양한 문학축제들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를 일례로 들어서 문학축제 특히, ‘낭독하는 문학축제’의 현황을 파악하겠다. 3월의 문학축제인 ‘파리국제도서전(Livre Paris)’<sup>12)</sup>과 ‘시인들의 봄(Le Printemps des Poètes)’을 통해 문학 그리고 시를 경축하는 프랑스에선 낭독을 위주로 하는 여러 문학축제들이 있다. 특별히 초대된 작가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낭독하는 “소리 높여A voix hautes”라는 행사를 축제의 주요 행사로 운영하는 파리국제도서전과 초대된 시인들 각자 일련의 시들을 낭독하는 ‘시인들의 봄’은 문학축제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프랑스 문학축제에서 (작가자신 혹은 연극배우에 의한) 낭독이 주된 행사로 치러지는 모습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문학축제들 대부분에서 관찰된다. 이를테면, 7월 한 달 후

12) Jean-Claude Pinson, *Habiter en poète*, Champ Vallon, Paris, 1995, 41-42면.

13) 파리국제도서전은 ‘Salon du Livre’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명명되어왔지만 2016년 축제에서부터는 ‘Livre Paris’라는 새로운 이름이 병용되고 있다.

가철에 프랑스인들에게 제안되는 주요 문학축제들만 살펴보아도 문학축제의 핵심이 문학적 목소리의 표면화인 낭독에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축제 명	지역	성향	주요행사	비 고
<i>Textes &amp; Voix</i> (텍스트 & 목소리)	Paris (프랑스 수도)	문학 텍스트를 낭독하는 페스티벌	현대문학작품(시와 소설)의 낭독 : 전문 연극인들이 낭독.	Association des Textes & Voix
<i>Lire et écrire des nouvelles</i> (단편을 읽고 쓰다)	Haute-Garonne (프랑스 남서부)	<불어권 젊은 작가상 연합회>에서 이 지역에 휴가 온 민박 손님들을 위한 축제. 5일.	낭독 작가들과의 만남	www.pjef.net
<i>Corsica Polar</i> (코르시카의 추리소설)	Corse (프랑스 코르시카)	프랑스 지중해에 위치한 코르시카 섬을 배경으로 하는 추리소설 축제 3일.	낭독 : 전문 연극인들 작가들과의 만남	올해 축제는 코르시카 섬 철도를 따라서 가는 추리극 축제
<i>Festival de la poésie LODEVE</i> (로데브 시 축제)	Lodève (남프랑스 지중해연안 로데브)	<지중해의 목소리>에서 주관. 모든 세대와 모든 취향을 위한, 시에 한정되는 축제	시 낭독 시인과의 만남 퍼포먼스 공연과 콘서트	프랑스 저명한 시인들 초청(2013년에는 미셸 뷔토르 Michel Butor) 및 24개국의 50여명의 시인들을 초대.

<p><i>Voix vives, Sète</i> (생생한 목소리, 세트)</p>	<p>세트 (남프랑스 지중해연안 도시, 세트 市)</p>	<p>“지중해 지역 현대시 축제”라는 주제를 내포. 전 지중해 지역에서 온 100명의 시인들과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큰 축제. 10일.</p>	<p>낭독 (축제 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낭독이 중요) 및 다양한 공연</p>	<p>Marie-Claire Bancquart Michel Deguy Rola Hassan(시리아) Salah Stétié (레바논) 초대 됨</p>
<p><i>Lecture sous l'arbre, Le Chambon-sur-Lignon</i> (나무 아래서 낭독)</p>	<p>상봉 쉬르리농 (프랑스 중부 루아르 지역)</p>	<p>이 축제는 다른 문학 장르 이전에 詩에 집중하는 축제. “여름저녁 나무 아래서 시를 읊는다”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축제이다. 1주일</p>	<p>음악이 동반한 시 낭독 작가들과의 만남</p>	<p>동시대 작가들뿐만 아니라 20세기 위대한 현대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낭독함. 카뮈, 베케트, 만델스탐, 상드라, 유스나 등등</p>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프랑스인들에게 시가 “빈사상태에 처한” 비참함에 아직 이른 것은 적어도 아니라는 것이다. 어쩌면 거의 고갈상태에 도달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문학이, 또는 詩가 적어도 프랑스 전체에서 거행되는 문학축제의 현장에선 “무한한 소수”를 위하여 그 숨결을 지켜내고 있음이 명백해 보인다. 그런데 모순은 통계학적, 사회학적 물음에서 솟아난다. 프랑스에서 시와 같은 순수문학 출판 상황은 황폐에 가깝다. 이를테면, 시집의 초판인쇄 부수가 1500부와 3000부 사이에서 유지되는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에서 시집의 초판인쇄 부수는 500부를 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판인쇄를 소진시키는 시집도 거의 드문 실정이다. 이것은 분명 시의 위기를 드러내는 증거이며, 21세기는 ‘시적인(poetic)’ 시대가 아님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일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이 시집 구매에 소극적일지는 몰라

도, 적어도 프랑스인들의 귀는 시적 목소리에 관대하고, 문학의 순수성이 울림으로 번지는 상황을 즐기고 있음은 명백하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에서 개최되는 각양각색의 문학축제는 문화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에도 순수문학이 생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각색과 응용에 의한 다른 문화 장르로의 전이 없이, 문학의 고유한 형태를 보존하면서 문학을 문화콘텐츠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문학축제 속의 낭독에서 찾아야 함을 입증해준다. 위의 표에 나오는 문학축제들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 문학축제는 대부분 문학작품의 낭독을 위주로 하여 운영된다. 문학축제 속 낭독은 작가 자신이 하는 낭독과 전문 연극인이 하는 낭독 두 가지 형태로 분리되며, 작품에만 집중하는 순수낭독과 다른 문화 장르(무용, 음악, 퍼포먼스)를 동반하는 낭독이 있다. 예를 들면, 1999년 창립 이래로 프랑스 최대 문학축제인 ‘시인들의 봄(Le Printemps des Poètes)’에서는 시인들이 자신의 작품을 낭독하는 순수성을 보존한다. 이 축제를 주관하는 각 대도시의 ‘시문학관(Maison de la Poésie)’은 정기적으로 시인들을 초대하여 낭독을 통한 독자-대중과의 만남을 주선한다. 실례를 들자면, 2002년 고은 황동규 신경림이 ‘시인들의 봄’에 초청받았을 때, 파리 시문학관 무대에 올라 낭독을 하였다. 또한, 2012년 6월 프랑스 最古 시 전문 계간지인 『포에지PO&SIE』가 한국시 특집호를 합본으로 출간한 기념으로 한국 시인들(황지우, 김혜순, 곽효환, 강정)을 초청하였을 때 요청한 것은 시인들 각자 한국어 시 낭독을 프랑스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었다—한국어 시 낭독에 이어, 프랑스어로 번역된 시는 프랑스 시인들에 의해 낭독되었다. 그리고 2016년 파리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초대된 한국의 작가들 및 시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받은 것은 도서전 방문객들을 위한 낭독이었다. 이처럼, 프랑스에선 문학 향연의 장에 초청받는 시인의 존재는 낭독에 의해 검토된다. 프랑스의 문학축제나 문학포럼에서, 혹은 역사 깊은 전통서점이 주최하는 저자와의 만남 같은 소규모의 문학 행사에서 낭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다양한 場에서 이뤄지는 낭독은 고대그리스 비극이 낭독되던 모습과 17세기 랑부이에 부인의 살롱에서 하던 낭독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작품 속에 내재한 목소리의 표면화 과정의 실현이라는 데에 있어서 오늘날의 낭독은 과거의 어느 시대 어느

공간 어느 저자에 의해 구현되던 낭독과 다를 바 없다. 더군다나, 때로는 작품만이 순수하게 낭독되고, 때로는 음악 혹은 무용과 같은 다른 문화 장르와 접촉하며 극적인 장면을 연출함에 있어서도 고대그리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서의 낭독은 구현된다. 이처럼, 비록 순수문학 작품의 출판계 조건에 있어서는 문학의 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어도, 서구에서 보존된 낭독의 전통은 독자-대중에게 순수문학의 (일시적) 재생 체험을 활발하게 선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문학축제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인들에게 문학은 ‘축제’라는 문화콘텐츠로서 수용될 수 있는가? 문학강연내지는 문학포럼 형태를 통해 대중과 직접적 접촉을 시도해왔던 한국문학이 축제의 장으로 들어선 것은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엄밀히 말해서, 축제의 기능을 갖춘 문학축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규모 있게 개최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6년부터 한국문학번역원(KLTI)이 주관하는 비엔날레 문학축제 ‘서울국제작가축제(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와 2010년 단국대학교 국제문예창작센터에서 주최한 ‘세계작가와의 대화’라는 행사에서 성장한 ‘세계작가페스티벌’이 대표적인 문학축제이다. 이외에도 ‘한국작가대회’와 ‘한국시문학축제’와 같은 문학축제들이 있지만, 문학을 문화콘텐츠화하기 위해선 아직 구축할 것이 많아 보인다. 더군다나 한국문학축제는 문학포럼에 근접한 모습을 띤다. 다시 말해서, 문학축제는 초대된 작가들에게 문학론이나 창작철학내지는 인생철학에 대한 특강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참석한 대중은 축제를 소비하는 유희주체가 될 수 없고, 강연장에 앉아 있는 수동적인 수강자의 지위만을 얻게 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축제는 축제의 성향을 띠기보다는 인문학특강프로그램의 성향을 띠게 되며, ‘문학을 문화콘텐츠화’하려는 의지는 부재하게 된다. 다만,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청하는 ‘서울국제작가축제’나 ‘세계작가페스티벌’과 같은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진 문학축제는 낭독을 핵심적인 구성으로 다루면서, 다양한 형태의 낭독 프로그램을 대중에게 제공하여 유희적인 축제를 선사해준다. 이를테면, 2014년 서울국제작가축제는 한국인 작가와 외국인 작가를 한 조로 구성하여 낭독과 록(Rock)음악을 합성하는 크로스오버 낭독의 장을 기획함으로써, 순수문학도 여타의 문화공연처럼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3년 수원에서 개최된 세계작가 페스티벌은 프랑스 시인 미셸 드기와 고은에게 헌정된 고전적인 낭독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2009년 제주에서 개최된 문화올림픽 ‘제3회 세계텔레픽대회’의 언어예술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시인 김경주의 음향과 조명이 활용된 퍼포먼스-낭독은 문학에 문화콘텐츠 기능을 부여하는 초기적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문학 향연의 장에서 낭독의 요청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문학축제는 낭독의 중요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낭독이야말로 순수문학 작품을 고유한 형태로 보존하면서 대중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간결한 방법임을 인지하는 데에서 문학의 미래적 생존성이 확장될 수 있다. 문학과 작가의 이미지만을 전시하는, 감동이 배제된 문학포럼과 다를 바 없는 문학축제의 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낭독의 형태와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 3. 맺음말

버지니아 울프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20세기 시인이 자신만의 습곡에 집중하는 것은 시의 필요한 쇄신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의미한 행위라고 피력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아우라에 싸인 시인의 세기는 닫히고, 바디우의 언표처럼, “낡은 사람의 파괴가 새로운 사람인 것”<sup>14)</sup>처럼, 과거와 분리될 것을 요청받는 시인의 언어가 정체성에서부터 뒤흔들리는 21세기에 시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란 물음을 다시 한 번 던져본다. 이 물음이 통계학적이고 사회학적 차원에서 고려된다면, 시는 분명 종말에 이르렀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계적 수치 속에 몰아넣는 현대사회가 도래하기 전에, 어느 세상에서도 문학의 생명력을, 시의 생명력을 숫자로 가늠하였던 적은 없었다. 시는 인류가 祭儀를 시작할 때부터 소리로 떠돌아 다녔고, 수 천 년을 소

---

14) Alain Badiou, *Le Siècle*, Seuil, Paris, 2005, 59면 : “L’homme nouveau est de destruction du vieil homme.”

리로 살아오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시의 생존성은 통계학적 기준이나 사회학적 담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시 속에 내재한 목소리가 세상을 향해 토해질 것인가라는 물음이 던져지는 지점에 있는 것이다. 시의 생존성이 내면적 목소리의 표면화를 통해서 구현된다는 것은 아프리카의 그리오(Griot)의 경우가 확인시켜 준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류가 하늘을 향해 소리를 내지르던 太古부터 제사장으로 음유시인으로 존재한 그리오가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문학과 시의 생존은 구텐베르그의 평면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시를 지면에 가두려는 것은, 미셸 드기의 이중적인 담론처럼 “21세기란 시적이거나 시적이지 않은 시대”<sup>15)</sup>에, 과거의 습곡에다 시를 안착시키려는 고집으로만 비취질 수 있다. 목소리에서 태어난 시 그리고 문학은 목소리로 떠돌며 생존할 것이다.

---

15) 2013년 10월 세계작가페스티벌에 초대된 미셸 드기는 『서정시학』과의 인터뷰에서 앙드레 말로의 언표 “21세기는 종교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란 말을 인용하면서, “21세기는 시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라고 표명한 바 있다.

[ABSTRACT]

Literature as cultural archetype, Recitation

JU, Hyounjin

This study is to reflect on the literature of ability to live in the future computationally sophisticated, but also about his identity that did exist before. In this study, we will consider the likelihood that the innate voice in literature could influence the livelihood of literature in the future. On this point, one can approach the literary reading aloud is a way to not only appear before the public, but also in the public. Many philosophers are concerned or persuaded by precariousness to be literature in the age to come. However, as the literature has always existed, this study will seek to know that there is the fundamental power to existing literature, that one is revealed when the innate voice in literature manifested. Thus literary reading can be considered as engine which literature existed since antiquity. That is why today, he looks important to study the free movement of literature or poetry as an action physically active, the reading aloud. Find a way to literature (or poetry) infiltrate the world by setting up as one of the cultural content. In sum, this section will review the status of literary reading aloud in the world invaded by multiple art-culture contents. We will thus confirm that can exist within literary festival, possible living literature.

Key words : Heidegger, Alain Badiou, Antonio Machado, Octavio Paz, Yves Bonnefoy, Michel Deguy, Reading, Recitation, Literature Festival, Salon du Livre, Printemps des poètes, Modern poetry

## 참고문헌

-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서양문학이입사연구)제1권』, 을유문화사, 1975.
-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上』, 학연사, 2008.
- 김유중, 『한국 모더니즘 문학과 그 주변』, 푸른사상, 2006.
- 나병철,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2004.
- 다비드 르 브르통, 홍성민 역, 『근대성과 육체의 정치학』, 동문선, 1998.
- 박철휘, 『한국 근대시사 연구』, 일조각, 2007.
- 백낙청,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 서구근대문학론집』, 1984.
- 버지니아 울프,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문학세계사, 1991.
- 오스카 G. 브로켓 외, 전준택 옮김, 『연극의 역사1』, 연극과인간, 2003.
- Alain Badiou, *Le Siècle*, Seuil, 2005.
- Antonio Machado, *Anthologie de Poèmes (1875-1939)*, Fondation Collioure.
- Hésiode, trad. Jean-Louis Backes, *Théogonie*, Folio Classique, 2001.
- Jean-Claude Pinson, *Habiter en poète*, Champ Vallon, 1995.
- Octavio Paz, *L'autre voix*, Gallimard, 1992.
- Yves Bonnefoy, *Le Nuage rouge*, Mercure de France, 1977.
- Yves Bonnefoy, *Poèmes*, Mercure de France, 1978.
- 「특별좌담 : 시대의 전환을 꿈꾸는 시인 - 프랑스 시인 미셸 드기와의 좌담(미셸 드기 최동호 김수복 곽효환)」, 『서정시학』, 봄호, 2014. 25-79면
- 이민호 (2012), 「다매체 시대 글쓰기로서 시 교육 연구」, 『국제어문』, 제56호, 국제어문학회, 2012. 9-34면.
- “Nur noch ein Gott kann uns retten”, *Der Spiegel*, 9월23일자, 1966.
- 주현진 (2013), 「한국 고등교육 속의 프랑스 시 위상과 전망」, 『불어문화권연구』, 제23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설 불어문화권연구소, 2013. 309-331면
- 한명희 (2013), 「문화관광콘텐츠로서의 ‘길’과 스토리텔링」, 『국제언어문학』, 제28호, 국제언어학회, 2013, 273-293면

<http://www.livreparis.com/fr>

<http://www.textes-et-voix.fr>

<http://www.pjef.net>

<https://fr-fr.facebook.com/voixdelamediterranee>

이 논문은 2016년 06월 30일 접수되어 07월 29일까지 심사받아 08월 5일 게재 확정됨.